

유리용기 시장동향

Market Trend of Glass Bottele

김정환/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과장

1. 서론

우리 나라에서 유리를 생산한지도 벌써 한 세기를 향해 흐르고 있다.

우리 나라 유리공업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거듭해 가고있으며 해방 후 지난 5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질적·양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하기에 이르렀다.

유리용기는 관련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유리용기를 대체할 새로운 용기의 개발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리용기 제조업의 과제와 전망을 조명해 본다.

유리용기는 제품의 내용물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비롯하여 청결성, 화학적 내구성, 기밀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갖춘 포장용기로서 주류, 청량음료, 식음료품, 화장품, 의약품용

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각종 일회용 대체용기의 개발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손쉽게 쓰고 버릴수 있는 일회용 용기의 급격한 증가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유리용기업체의 제조기술은 자체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세계수준의 품질을 갖춘 유리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유리용기는 타용기에 비해 중량에 대한 단점이 있어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량화된 병이 현재 생산·시판 중에 있다. 유리용기는 타 재질의 포장용기에 비해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자동제병업체 생산능력 및 종업원수

구분	담배	두산	심광	수삼	인성	태평양	하이트	현대	합계
종업원수 (명)	175	859	729	192	174	106	71	98	2,404
용해로 (톤/일)	360	1,040	576	150	200	50	150	100	2,626

2. 국내유리용기산업현황

2-1. 국내 유리병산업의 현황

국내 유리병 업체는 약 20개 업체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들은 연간 중량으로 약 70만톤 정도, 개수로는 약 50억 개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다. 2000년 말로 부터 일 생산능력은 2,600톤/일이며 총 종업원 수는 약 2,400여명 정도가 국내 포장용기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유리병산업은 '77년 250천톤에서 2000년 739천톤으로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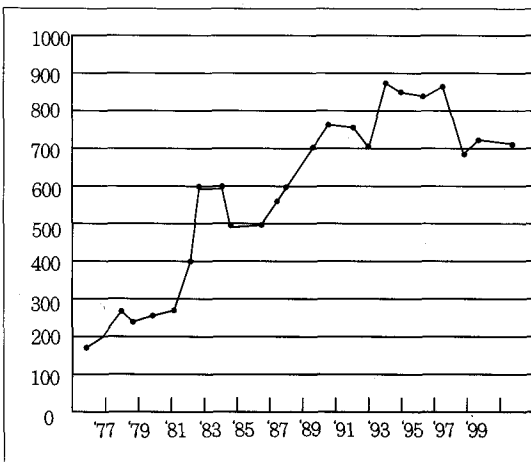
[그림 1]의 연도별 유리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매년 평균 3만톤씩 증가하여 왔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의 국가별 국민1인당 유리병 생산량을 볼 때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리병의 단위 생산량이 작아 아직 성장의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추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거나 포화상태에의 도달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할만한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에서의 유리병산업의 성장추이와 향후 전개될 국내의 저성장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의 성장세가 지금과 같은 직선적인 성장추세를 계속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의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성장 속에서 주기적인 호경기와 불경기의 경기 Cycle을 반복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의 단기적 시점으로는 최근의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불경기에 속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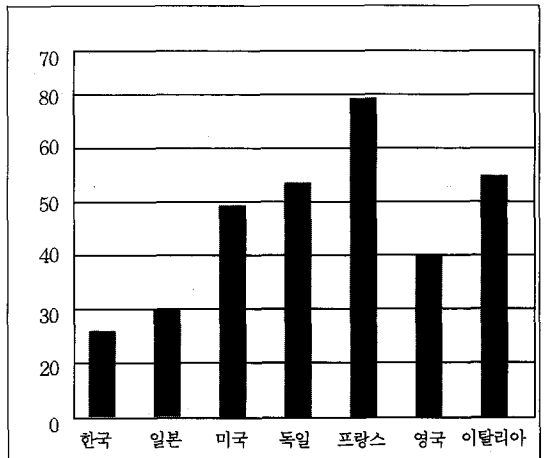
'96년도는 '95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약간 증가하여 경기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기 Cycle은 장치산업의

[그림 1] 국내 유리병 생산량 추이 연도별 변동 상황



[그림 2] 세계 유리병 생산량 추이

(kg 1인/년)



[표 2] 국내유리병 연도별 판매량추이

(단위 : 톤)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맥주	151,025	93,507	68,176	97,434	42,917	44,032	82,742
소주	133,238	106,099	135,392	142,050	110,782	158,713	98,984
양잠주	68,096	54,280	48,585	53,824	28,324	50,822	65,330
청량음료	36,977	41,676	23,185	32,483	33,634	18,918	23,059
건강·영양	183,788	210,743	242,059	196,621	131,800	154,563	191,739
식품	84,019	73,906	76,139	85,839	60,517	64,999	59,315
제과	180,962	172,810	149,467	186,965	170,313	180,345	156,136
화장품	13,045	10,114	10,997	9,766	5,878	10,364	10,245
수출·기타	54,763	31,218	46,509	46,984	47,233	34,699	26,091
계	905,913	794,353	800,509	851,966	634,170	717,446	713,641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의 수요변동에 대한 공급 능력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수요 증감에 대한 공급능력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수요 증감에 대한 공급능력의 Flexibility가 부족하여 항상 최대 수요를 겨냥한 공급능력 확보에 치중해 왔고, 수요 감소시에는 용해공정이라는 특수 공정이 있어 조업조절이 용이치 않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동률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경쟁체제에 도입하여 왔다.

더욱이 업계간 협력관계가 부족하여 수요 증가 시는 항상 유리용기 제조회사별로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 하였고, 이로 인해 그 이후 년도에는 항상 공급능력 과잉과 불경기를 초래하였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국내 전체 및 각 사별로 공급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유리용기 제조회사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품종별 시장규모 및 추이

'94~2000년간의 품종별 유리용기의 국내전체 시장규모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유리용기 시장을 살펴보면 '94년을 정점으로 Peak를 이루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를 이룬다 '98년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급속한 판매감소가 이루어 졌으며 이 시기에 유리용기 제조업체간의 구조조정이 (일생산량 3,200톤에서 2,600톤으로 감소) 이루어 졌다. 이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년 70만톤 정도의 유리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맥주병은 '94년 맥주3사의 경쟁적인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후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8~'99년 맥주수요의 감소로 인해 '97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이 판매감소가 되었다. 이후 2000년엔 프리미엄 맥주의 출시로 인하여 예전의 수준으로 판매가 회복되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약 8만톤 정도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병은 신제품 출시에 따라 판매량의 증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주업체의 순한 소주 출시경쟁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콜라, 사이다가 주류인 청량 음료병은 대체용기인 PET, 캔 등의 시장잠식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식품병도 중량문제로 인하여 점차 PET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수출도 물류비용 및 운반비용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3. 향후전망

현재 국내 유리용기제조업체의 제조기술은 자체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세계수준의 품질을 갖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다.

유리병은 타용기에 비해 중량에 대한 단점이 많아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 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진] 유리병 제품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량화된 병이 현재 생산·시판 중에 있다.

이렇듯 유리용기가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로서의 우수한 특성과 재활용 용기로서의 친환경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 유리용기 제조

업체가 공존·공생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대체용기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유리용기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노력할 때 유리 용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